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8~9/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팔천송반야경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전순환	불광출판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금강경 요해	노우스님	운주사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죽음을 명상하다	조한 할라렉스/이성동, 김정숙	민족사
4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9	과학자인 나는 왜 영성을 말하는가	루퍼트 셸드레이크/이창엽	수류책방
5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조계종출판사	10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산스크리트 완역으로 만난 최초 대승경전



팔천송반야경
전순환 번역/불광 펴냄/3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열반 이후 초기불교 사상에 혁명성을 더한 대승불교. 그 태동이 담겨진 〈팔천송반야경〉은 〈금강경〉 〈반야심경〉의 기초가 된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반야바라밀다와 보살 · 공(空)의 개념 및 진의가 모두 밝혀져 있다. 지금까지 〈팔천송반야경〉은 초기 대승불교 반야부(般若部) 최초의 경전이라는 중요성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 그중 특히 독일 괴팅겐대학, 미국 웨스트대학,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등 서구의 여러 학술단체가 〈팔천송반야경〉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헌학적 관점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했다.

산스크리트를 전공한 언어학자 전순환 박사 역시 〈팔천송반야경〉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난 10년간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번역과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물인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원전 완역이며, 세계에서는 에드워드 콘즈의 영어 번역과 가지야마 유이치의 일본어 번역 이후 세 번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연구성과 및 새롭게 발견된 사본 내용도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세계 최초의 현대어 완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영어와 일어 두 번역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상 오류도 바로잡은 이 번역서는 〈팔천송반야경〉의 결정판이자, 대승불교의 맥을 잇는 한국불교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반야부경전의 첫 번째 경전이자 대승불교 최초기 경전 중 하나인 〈팔천송반야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보살과 공(空)사상의 개념이 담겨 있다.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2천여 년 전에 성립한 문헌이라는 점에서 언어학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독일서 언어학으로 산스크리트를 전공한 전순환 박사는 이 경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밀한 번역과 연구를 해왔다. 이 과정서 언어학자답게 〈팔천송반야경〉의 산스크리트 원전 텍스트 전부를 음절 단위로 쪼개어 어원을 분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마쳤다. 여기에는 미트라(Mitra)본, 오기하라(荻原)본, 바이댜(Vaidya)본 등, 현존하는 〈팔천송반야경〉의 산스크리트 사본 3종 모두를 비교 대조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어원 분석만으로 어휘 사전 한 권이 나올 분량이다. 또한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의 영어 번역(1978)과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의 일본어 번역(1974)도 모두 검토한 후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간다라 지역(현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바자우르)의 옛 불교사원 터에서 새롭게 발굴된 〈팔천송반야경〉 사본 일부분도 연구 번역해 추가시켰다. 이처럼 지난하고 방대한 연구 과정을 거쳐 탄생한 책이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팔천송반야경〉이다. 대승불교가 발아하는 시기와 맞물려 탄생한 〈팔천송반야경〉에는 이타적 인간상의 표본인 보살의 의의, 그리고 공성(空性)의 담론이 펼쳐진다. 하지만 전순환 박사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을 꼬집는다. 바로 '반야바라밀다' 의 진정한 의미이다. 〈팔천송반야경〉서 수없이 반복되는 '반야바라밀다' 라는 말은 보살과 공, 그 밖의 어떤 단어보다 많이 언급된다. 즉 〈팔천송반야경〉의 핵심 내용은 '반야바라밀다' 에 있다는 뜻이다.

"空 알려면 반야바라밀다 알아야 한다"
10년간 3종의 산스크리트 사본 비교
기존의 영어 · 일어 번역 오류 교정해
세계 최초로 새로 발견된 사본 추가

전순환 박사는 반야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쁘라즈냐(Prajna)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다. "팔천송반야경서 반야를 말할 때는 앞에 단어가 더 붙습니다. 바로 야타부탐(yathabhutam)입니다. 쁘라즈냐와 결합해서 해석하면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 아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반야의 뜻이고 다른 말로는 진여지(眞如智)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밀다는 흔히 완성(perfection)이라고 번역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 상태' 를 가리킵니다. 경전에서는 '극도(極度)' 라고 표현합니다. 반야와 극도를 서로 맞물리면 극도의 진여지, 즉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상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되고,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사상도, 보살의 개념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같은 반야부경전에 속하는 〈금강경〉 〈반야심경〉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전들의 출발점이 〈팔천송반야경〉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와 공의 진의를 알려면 이 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대승불교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극도의 경지' 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팔천송반야경〉은 기원 전후 100년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본이 원형에 가깝고, 그 성립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태동하던 때와 같은 시대에 성립되었고, 최초의 반야부경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팔천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반야경'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대승경전인 만큼 이 경전을 통해 반야 사상이 움트는 모습과 그 속에 잠재된 공사상을 엿볼 수 있다. 반야부경전 연구의 권위자인 가지야마 유이치와 에드워드 콘즈는 반야경의 발전 단계를 4기로 구분한 후 〈팔천송반야경〉을 1기에 자리매김했고, 모든 반야부경전의 원형으로 보았다. 후대 학자들도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반야부경전을 연구하는 기본 문헌으로 〈팔천송반야경〉을 매우 중시한다. 당시 이 경전이 쓰였을 시기의 문자는 기원전 500년 이전부터 쓰였다고 전해지는 브라흐미(Brahmi)이고, 언어는 간다리어를 포함한 중세 인도어인 프라크리트의 여러 방언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팔천송반야경〉이 반야부경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대승경전 및 논서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불교학은 물론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문헌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식 잃은 아비 세조가 부모님께 바친 사부곡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7천원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인 1447년 7월 칠석에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이 완성된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이 단숨에 노래를 지었으니 바로 600수에 가까운 〈월인천강지곡〉이다. 1446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이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아내와 어머니 소헌왕후를 여읜 해이다. 나이 쉰의 아비와 서른의 아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이었을 것이다. 때마침 그들에게는 출시를 앞둔, 세상을 가르칠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다. 이 새 문자로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두 부자의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그 후 12년이 지난 1459년 세조는 고인이 된 부모님과 요절한 아들 의경세자를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월인' 과 〈석보상절〉의 '석보' 를 따서 합한 책 〈월인석보〉를 만든다.

세조 5년, 1459년 집권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리는 시간, 그는 수양대군 시절 아버지 세종의 명에 따라 만들던 〈석보상절〉을 다시 매만진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도 많았지만 이 〈월인석보〉 작업을 할 때에는 식음을 잊고 바쁜 정사서 시간을 쪼개가며 틈을 내어 했다는 기록이 〈월인석보〉 서문에 전한다.

저자 정진원 교수는 〈월인석보〉 스물다섯 권 중 첫 권을 현대국어로 옮기고 다듬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였다. 세조의 절절한 사모곡과 사부곡,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과 왕이 되기 위해 저질렀던 잘못의 참회로 가득한 〈월인석보〉 서문으로부터 석가모니의 과거세 연등불 시절 선혜와 구이 이야기,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시작되는 인간 세계의 불교식 창세기가 〈월인석보〉 본문에 광대한 스케일로 촘촘히 실려 있다. 그 도저하고 유장하고 사무치는, 15세기까지 이어진 우리 선조의 정수를 담은 불교 이야기 〈월인석보〉는 현재 25권 중 19권이 발견된 상태로, 저자는 전권 번역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세주와 본문을 풀이했다.

최초의 조선 대장경, 조선 최고의 걸작 〈월인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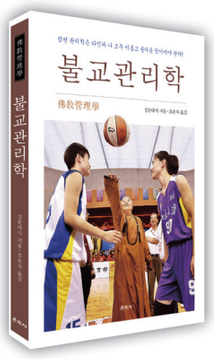
조선은 '유교' 를 국시로 삼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펼쳤다. 심지어 세종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교종과 아홉 산문에 자리 잡던 선종 5교 9산을 혁파하고 선종과 교종 곧 선교 양종으로 불교를 대폭 축소시킨 주인공이다. 그런 세종이 왕자인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을 짓고 서문을 쓰게 한 사실이 〈월인석보〉 서문에 자세하다.

이 책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 간략히 할 것은 간략히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 이다. 〈월인천강지곡〉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이 하나지만, 지상에 있는 천 개의 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두루함을 노래한 것이다. 특히 〈석보상절〉 내용을 게송처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형식은 부처의 설법 내용을 전한 뒤에 요약한 게송이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 우리의 최초 조선대장경도 그 형식대로 하자면 제목이 '석보+월인'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양은 세조가 된 뒤 5년 후인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신이 쓴 〈석보상절〉 산문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 의 순서로 만든 것이다. 조선식 대장경의 시작이다.

김주일 기자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포교 비법!

불교관리학



참된 관리학은 타인과 나 모두 이롭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세간의 각종 관리 가운데 가장 관리하기 어렵고 중요한 관리가 바로 '사람'이다. 타인에게 믿음을 주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타인에게 편리함을 주어야 한다.

성운대사 지음/조은자 옮김/신국판/336쪽/값 16,000원

중국 선종의 중흥조, 마조 선사의 가르침!



마조어록 역주

각종 선종 사서에서 마조선사 및 그 제자들과 관련된 기연어구를 뽑아냄으로써, 중국 선종사에서의 선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하였다. 원문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하고 상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마조도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592쪽/값 28,000원



불면증,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길어 올린, 불면증의 실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다!

"갑자기 잠이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약들 다 버렸습니다." (-치유 후기 중에서)

김명주 지음/신국판/304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